

찾아오시는 길



(04533) 서울시중구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TEL +82-2-753-3131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1호선 시청역 | 5번, 6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을지로 입구역 | 8번 출구 **도보 3분**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롯데백화점 하차 (정류장 번호:02-140)

간선 100, 143, 151, 152, 202, 261, 262
405, 501, 701, 702A(서오름), 702B
(응두초교), 705, N15, N30

지선 7017, 7021

광역 9701

을지로입구, 시청입구 하차 (정류장 번호:02-157)

간선 172, 472, 500, 504, N62

지선 8800, 9007

광역 M4108, M5107, M5115, M5121

시청광장 하차 (정류장 번호:02-641)

간선 172, 472, N62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11월 22일(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KIEP-IMF 공동컨퍼런스 사무국
(044-414-1214 / kiep_imf@kiep.go.kr)

제 9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020년 세계경제 전망: 불확실성의 확대와 금융안정

일시¹ 2019년 11월 26일 14시

장소¹ 서울 호텔 프레지던트 슈벨트홀 (31층)

초청의 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던 세계경제는 2020년에는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타결을 선언한 RCEP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를 완화시킬 것이며, 미·중 무역분쟁도 지속되기는 하나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여타 신흥국의 성장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은 부분타결에는 이르더라도 기술패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둔화에 맞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와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브렉시트, 홍콩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불확실성의 확대는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자본유출입 변동성의 심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하락 시켜서 금융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가져오는 금융불안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2020년 세계경제 전망: 불확실성의 확대와 금융안정」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2020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의 금융안정에 대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 재 영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개 회 식
14:00~14:10 (10')	개회사 이재영 KIEP 원장
	제1세션. 2020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전망 사회: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
	① 2020년 KIEP 세계경제전망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14:10~15:10 (60')	②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도전과제와 기회 CRAIG, R. Sean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이코노미스트
	질의응답
15:10~15:20 (10')	Coffee Break
	제2세션.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의 확대와 정책과제 사회: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①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이동관리 Nour Tawk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
	②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20~17:00 (100')	토론: CRAIG, R. Sean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왕윤종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강태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질의응답

※ 국영문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